

# 2014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구촌 교육나눔 연차보고서

2014 Annual Report of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교육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 목차

04	후원자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06	유네스코의 교육 나눔, 이래서 절실합니다
08	소중한 후원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11	소중한 후원금, 지구촌 곳곳에서 배움의 희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2	숫자로 보는 유네스코 교육 나눔
18	유네스코 교육 나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4	동행해 주신 소중한 후원자님
28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업 그리고 희망나눔가게
30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학교
32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친선/홍보대사



## 후원자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

2014년 3월 아프리카 국가 짐바브웨에서 진행되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교육 지원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틈에서 글자를 열심히 받아쓰는 노인 한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만 93세인 ‘데인저 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 꿈을 꿀 수 있게 하는 힘, 바로 교육입니다

짐바브웨의 평균 수명은 50세가 채 못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로하신 분이 어린 아이들 틈에서 주름진 손으로 몽당연필을 손에 꼭 쥐고 글자를 적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와서 글을 배우십니까?” 그분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처음엔 인간답게 대접받고 싶어 글을 배웠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꿈이 생기더라고요. 초등학교 검정시험도 보고 그러고 나서는 난생처음 내 가게를 열어보려고 해요.”

숫자를 세지도, 글을 읽지도 못하기에 소박한 꿈조차 꿀 수 없었던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또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 지구촌 교육 나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앞장섭니다

가난과 질병이 대물림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지구촌 이웃들. 그들이 빈곤의 사슬을 끊고 오늘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길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이 소중한 사명이 유네스코 브릿지 사업이며, 바로 후원자님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 소중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시작된 유네스코 브릿지 후원모금에 많은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후원자님 중에는 본인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기꺼이 생활비를 아껴 지구촌 이웃을 위해 후원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자신이 받은 장학금을 성금으로 기부한 고3 수험생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토래 친구를 돕자고 성화인 여섯 살배기 딸의 손을 잡고 직접 찾아오신 아빠도 계셨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박봉을 쪼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 교내 자선활동으로 모은 기금을 고사리손으로 건네준 학생들...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이, 사연 하나 하나가 아름답고 소중하기만 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소외 당하는 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소중히 가슴에 새기며 후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며,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소중한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더 가치 있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더 땀 흘리고, 한 걸음 더 뛰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 동 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민 동 석



## 유네스코의 교육 나눔, 이래서 절실합니다.

### 이제는 교육입니다

지난 60년간 1,500조 원 넘는 지원에도 아프리카의 굶주림과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출처 | UI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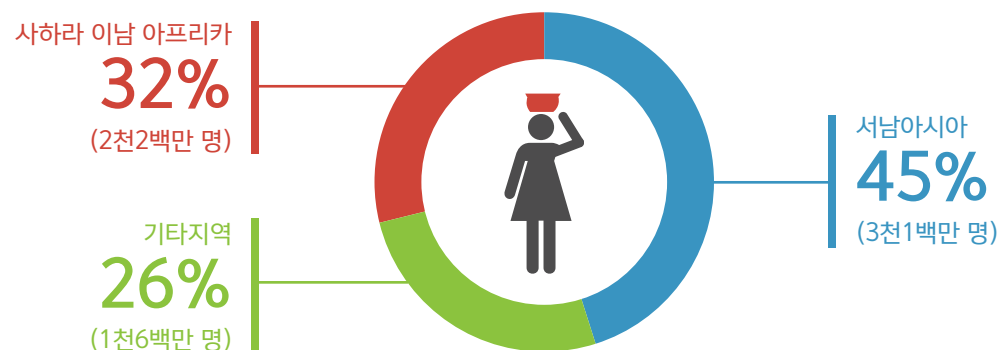
### 전 세계 미취학 아동이 5천7백만 명

그들 중 3천만 명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어린이이고, 1천2백만 명이 서남아시아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입니다.



### 전 세계 학교 밖 청소년이 6천9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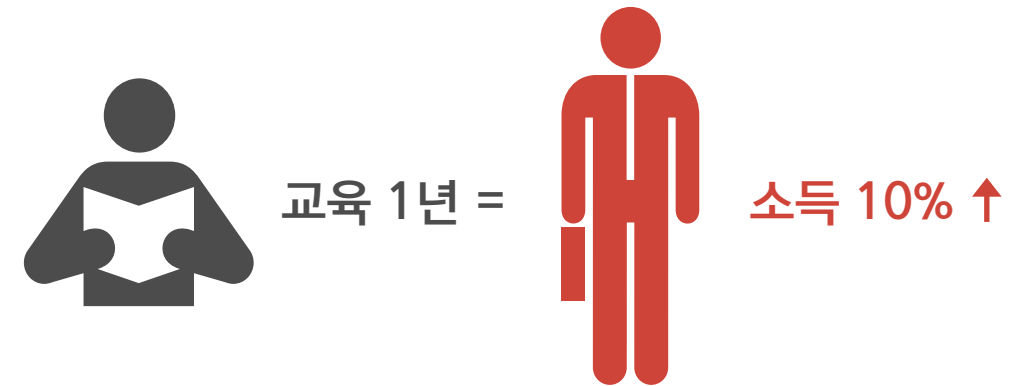
그들 중 2천2백만 명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3천1백만 명이 서남아시아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교육의 기회가 없어 글조차 모르는 성인이 무려 7억7천만 명 이상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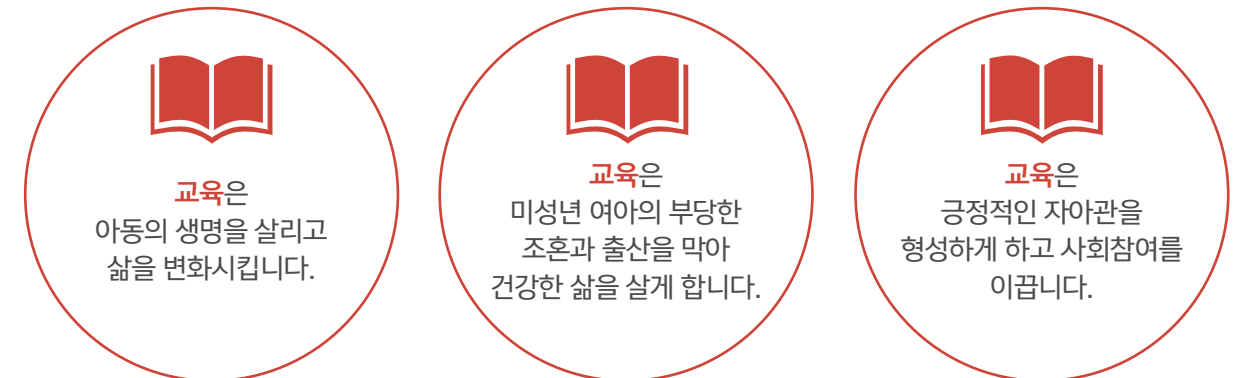
출처 | EFA GMR(Global Monitoring Report) 2009

빵과 약만으로는 가난과 고통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직 교육만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1년의 교육은 10%의 소득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나이, 성별, 종교 그리고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최선의 길, 바로 교육입니다.  
이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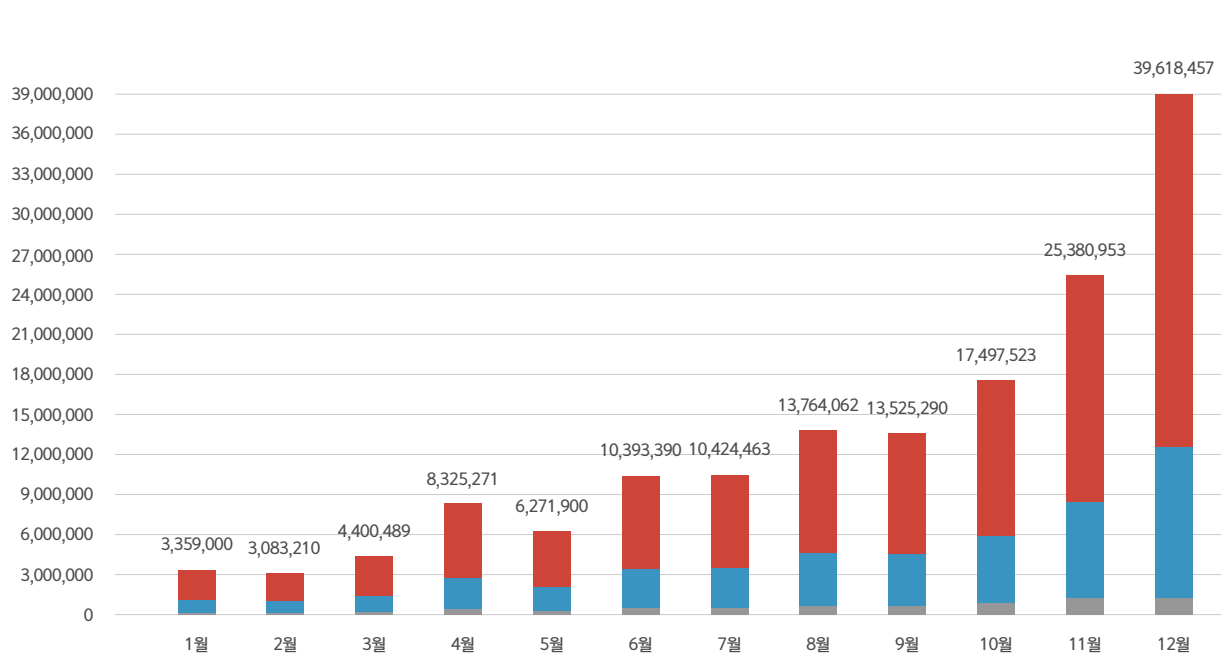


# 소중한 후원금, 이렇게 모였습니다.

2014년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구촌 교육 나눔을 위해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드린 첫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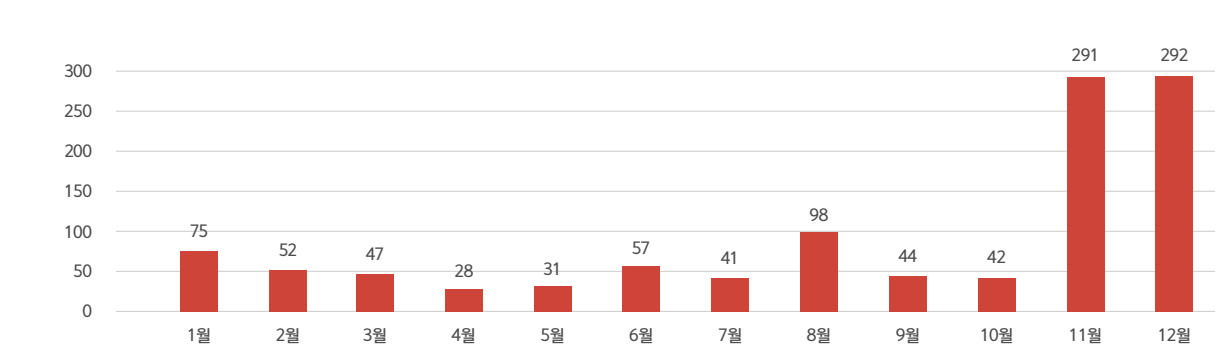
총 일반대중 후원금(원)

156,044,008



총 정기후원 신청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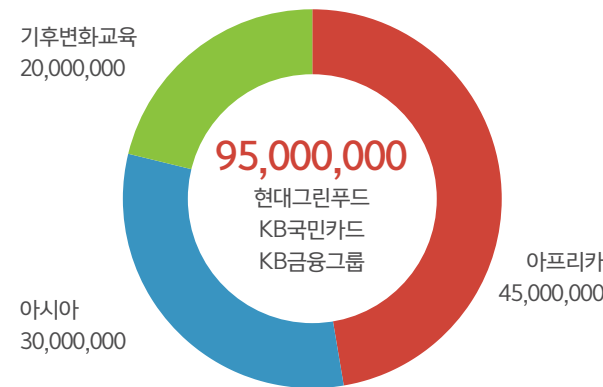
1,098



그리고 기업, 정부, 외부단체가 힘을 보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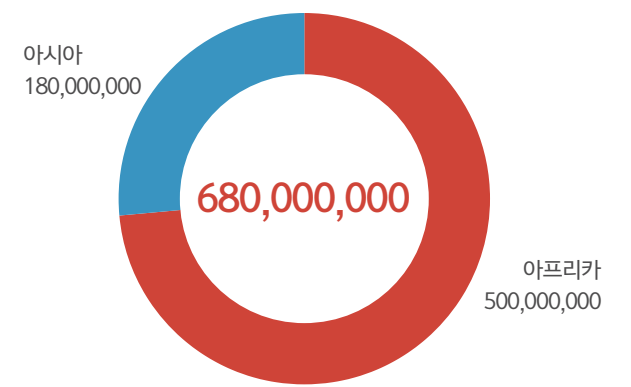
(단위: 원)

기업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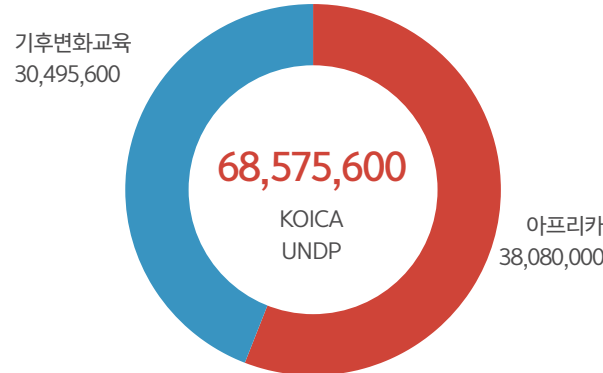


※ 기아자동차 국내사업(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 후원금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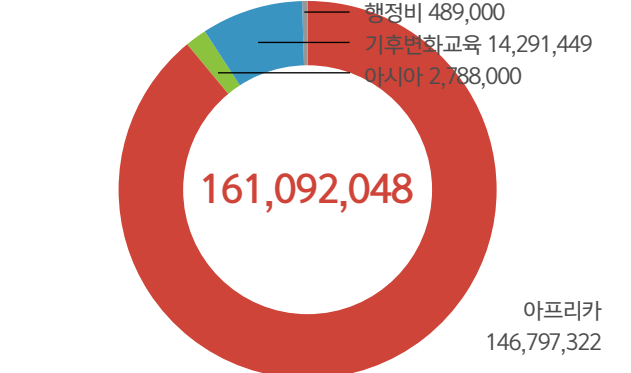
정부지원금



외부단체지원금



전년도(2013년) 이월금



※이자 등 기타 잡수입 299,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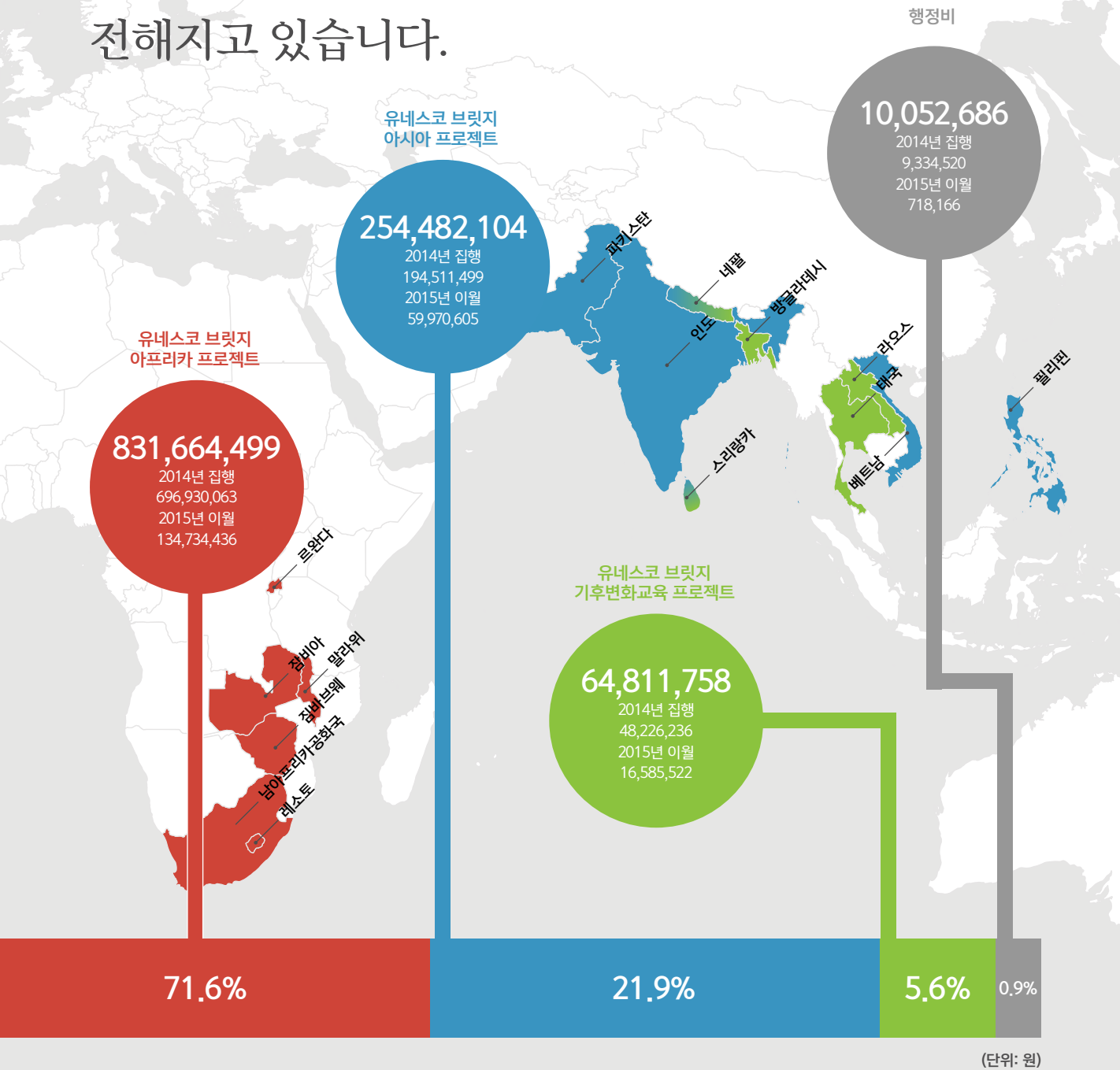
총 합계

1,161,011,047





소중한 후원금,  
지구촌 곳곳에서 배움의 희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유네스코 교육 나눔



#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사업실적



교육 수혜자

2,673 명



교사 양성

78 명



지역학습센터

15 곳



교재 보급

7,924 부

“아이들이 지내야 할 곳은 공장이 아닌 학교입니다.”

사진 | 짐바브웨 돔보샤와 지역학습센터

숫자로 보는 유네스코 교육나눔

13



르완다

200  
1



말라위

648  
22  
3  
1,440

그리고 소득증대교육  
(텃밭구축/재봉교실) 실시



잠비아

239  
20  
3

그리고 CLC 화장실 및  
물탱크 구축



남아프리카공화국

171  
6  
1  
134

그리고 소득증대기술교육  
(제과·제빵) 실시



짐바브웨

1,305  
12  
3  
4,434

그리고 소득증대교육  
(양계장 구축)실시,  
교보재 보급



레소토

110  
18  
4  
1,916

그리고 소득증대교육  
(재봉교실)실시

유네스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나라별 교육 수혜자 수와 활동들

※ 향후 확대 예정국가 |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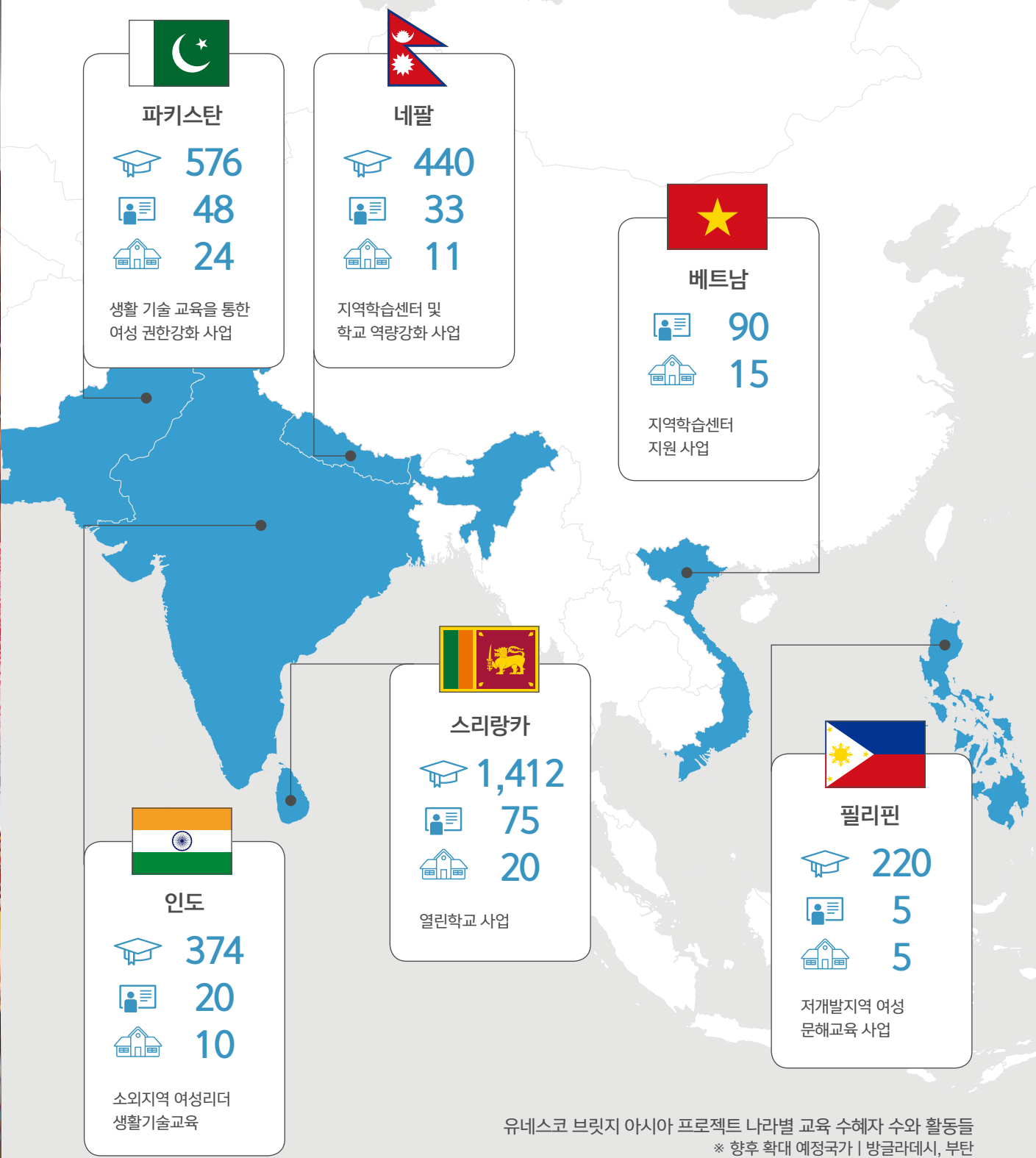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젝트 사업실적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전과 다른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진 | 파키스탄 하피자바드

숫자로 보는 유네스코 교육나눔



유네스코 브릿지 아시아 프로젝트 나라별 교육 수혜자 수와 활동들  
※ 향후 확대 예정국가 | 방글라데시, 부탄



# 유네스코 브릿지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사업실적



교육 수혜자

8,937명

사진 | 네팔

국가	단체	내용
네팔	잔타 중고등학교	유기농작물 재배, 폐고무제품 수거 지역사회 위생환경 개선활동
	푼야 중고등학교	기후변화현상 집중교육과 인식개선선활동 조리용 화로 및 굴뚝개선 작업
	싱하 데비 중고등학교	푸른 동네 가꾸기 프로젝트
라오스	루앙프라방 국립 고아원 부설학교	유기농 비료 직접 생산, 유기농채소 재배 활동
	파사티파타이 중고등학교	폐품을 재활용한 공예품 제작 활동
	국립 재생가능에너지 신소재 연구원	재생가능에너지 교육을 위한 센터 설립
방글라데시	프레로나(지역 NGO단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기반 교육
스리랑카	데비 여자중고등학교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삼림보호 활동
태국	프라차윗 종합학교	농촌지역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숫자로 보는 유네스코 교육나눔

17



유네스코 브릿지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 나라별 교육 수혜자 수와 활동학교들



## 유네스코 교육나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글을 읽고 쓴다는 건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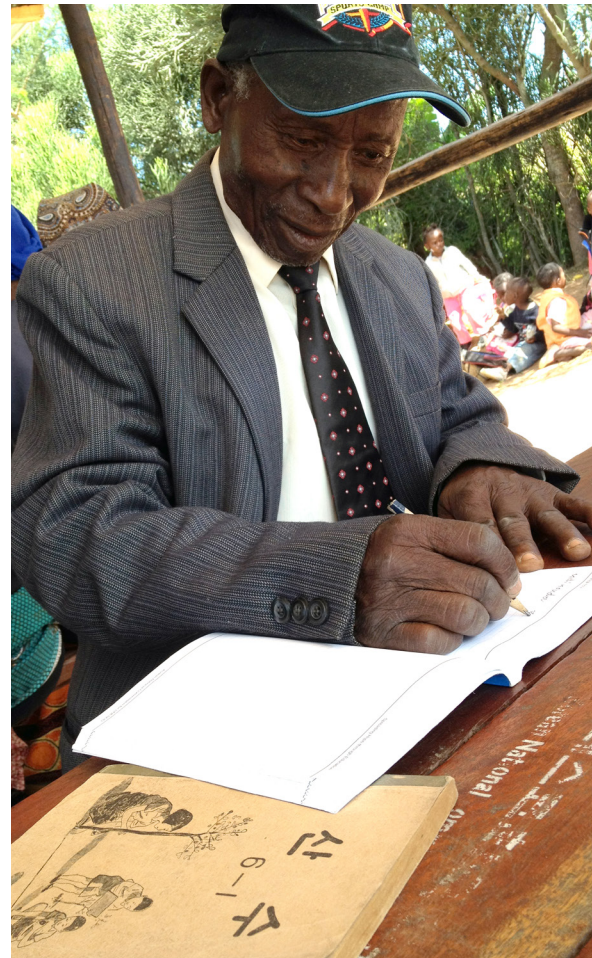
짐바브웨 / 나이 초월한 배움, 아흔 살에 펼쳐는 새 인생

**짐** 바브웨 돔보샤와의 데인저 샘 할아버지는 93세의 나이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세운 지역학습센터에 나와 숫자배우기와 글자를 익히고 있습니다. 비문해자로 살면서 은행에 가도 제대로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지 못해서 부끄러웠던 기억들, 마을 주민회의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평생 농부로 살면서 비료에 적혀있는 글들을 읽지 못해서 농작물 수확이 제자리 걸음이었던 것들을 개선하고 싶은 꿈이 3년전 90세의 그를 문해교실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망백을 훌쩍 넘은 나이에 공부의 즐거움과 효용성을 깨달았다는 샘 할아버지. 문해교육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학습속도가 느렸지만 지금은 수셈과 재정지출, 예산편성 등의 ‘수해’(numeracy: 수를 세고, 계산할 줄 아는 문해능력)를 배워 샘을 아주 잘하신다고 합니다.

“나에게 문해교육이란 두 눈을 뜨게 해준 것, 그래서 새로운 세상과 만나게 해준 그 무엇입니다. 이제 나는 읽고 쓸 수 있으며, 아무런 부끄럼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문해’는 나의 생활과 기술을 발전시켜주는 개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문해교실 덕분에 나의 사고를 넓힐 수 있게 되었어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평생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몸소 보여주신 샘 할아버지를 응원합니다.



94세 문해교육생 샘 할아버지

## 태어나 한 번도 걷지 못한 남매가 일구는 희망의 교실

말라위 / 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 깨뜨리는 렉스와 파티마

**말** 라위는 장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심한 곳입니다. 장애인들은 귀신이 씌어 있다든가, 죄가 많아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태어날 때부터 휠체어에 앉아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렉스와 파티마 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놀림감이 되는 것은 물론, 돌을 던지거나 휠체어에 타고 있는 렉스를 그대로 밀쳐버리는 등 심한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선생님들도 한 학급당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장애를 가진 렉스에게까지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렉스는 누구보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지만, 주변의 왜곡된 시선과 장애에 대한 편견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학교보다 재미있는 유네스코 브릿지 방과후교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렉스는 처지가 비슷한 또래 장애청년들과 함께 삶을 변화시키고자 유네스코 브릿지 프로젝트와 함께 나미양고 지역사회 장애아동들을 위한 방과후교실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아픈 기억들을 되살리며,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들의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40여 명의 장애아동들은 유네스코 브릿지 방과후교실을 통해 학교에서 미처 다 배우지 못한 알파벳과 산수 등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보다 유네스코 브릿지의 방과후교실을 더 재미있어 합니다. 여기에선 누구도 외톨이가 아니니까요.

렉스와 파티마, 그리고 아이들에게 방과후교실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이들 마음속 희망의 등불이 활활 타올라 미래를 밝게 비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네스코 브릿지 방과후교실의 렉스와 파티마





## “앞마당 교실에서 우린 꿈을 키워 갑니다”

짐바브웨 / 교실이 없어도, 생활이 팍팍해도, 이어지는 배움

**짐** 바브웨 돔보샤와 지역의 타가리라 마을 지역 학습센터 교사인 에밀리는 학생들에게 “집 밖에서 만나는 엄마”입니다. 2011년부터 4년째 이곳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내 능력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것”을 가장 속상해하는 천생 선생님입니다. 교실이 없던 때도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가르쳤고, 학습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신의 땅까지 내놓은 덕에 ‘대인배’로 알려질 만큼 호탕하고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 에밀리에게 교육은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는 활짝 열린 창문입니다.

“지역학습센터가 마을의 발전 동력이라는 믿음이 저를 이끄는 것 같아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생

들에게 기회를 주고 능력을 키워 미래의 싹을 틔우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센터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저와 함께 돔보샤와의 발전을 고민하는 동료들이기에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용어인 쇼나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고, 아동과 성인문해교육뿐 아니라 핸드메이드 세제를 만드는 등 지역 소득 증대사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지나면 이곳 출신 아이들이 금의환향하여 마을을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꿈꿉니다.

수업 중인 짐바브웨 돔보샤와 지역 아이들



## “여성의 배움 막던 가족들 이젠 오히려 도와, 그 자체가 교육의 힘”

인도 / 기능문해센터 교사 사리타 & 잘리나

**2** 011년 현재 인도의 전체 문해율은 74%입니다. 이웃 파키스탄이나 네팔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남녀간의 문해율 격차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같은 시기 남성의 문해율이 82.2%인 반면, 여성의 문해율은 64.5%에 그치고 있는 것. 이렇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지역학습센터나 교육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슈리칸쓰푸르와 브하바니푸르지역의 기능문해센터교사인 사리타 씨와 잘리나 씨를 만나, 그곳에서 싹트는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역에서 문해교육을 펼친 이후 체감하는 변화가 있나요.**

사리타 | 원래 마을 여성들은 외부와의 교류가 많이 없었어요. 정부 직원들과 얘기하거나 만날 기회도 없었죠. 당연히 정부와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복지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문해교육을 받고 나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자, 이런 행정 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든 게 가장 큰 변화라 생각해요.

잘리나 | 학생들이 문해교육을 받은 후 실생활에 적용해 쓰는 모습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가계부 쓰기, 저축하기 등등이 있죠. 처음에는 여성들이 FLC에 나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가족들이 많고, 심



기능문해센터 교사 잘리나

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가족들이 더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역사회 전체의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사리타 | 한위가 문해교육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 덕에 저처럼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다 마치고 선생님이 되어 이 마을 여성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잘리나 | 이곳에서 일하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저처럼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많이 있길 바랍니다.

## “조리기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방글라데시 / 세토나 지역개발협회 & 지니데비 아그왈 여자대학

**방**글라데시 북쪽 인도, 네팔 국경지대와 가까운 타쿠르가온은 2006년 이상 기후현상으로 인해 40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던 곳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혀왔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피해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 주민들도 지역 사회의 갑작스런 폭한, 혹서, 불규칙한 강우량 변동이 기후변화로 인한 것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만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세토나 지역개발협회에서는 지역의 거점 학교인 지니데비 아그왈 여자대학과 함께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지난 2012년부터 구상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한 공기 만들기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집집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거예요”



마다 나무 땔감을 이용한 조리용 화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 땔감 화덕은 열효율도 높지 않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과 기타 유독가스가 함께 배출돼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무분별한 벌목 활동을 막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리용 화덕을 새로운 기구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니데비 아그왈 여자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아프로자 베검 씨는 일부 개도국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개량화덕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베검 씨는 주민들에게 개량화덕을 직접 제작하는 방법, 개량화덕 사용의 장점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며 그동안 벌목으로 인해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삼림 지역에 주민과 함께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원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를 통해서였습니다.

베검 씨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개량 화덕 제조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타쿠르가온 지역은 물론 방글라데시 전체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삶의 터전과 소중한 자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입니다.

유네스코와 함께한  
아름다운 사람들



# 동행해 주신 소중한 후원자님

혼자 걸으면 발자국만 남지만, 함께 걸으면 길이 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펼치는 ‘교육 나눔’ 활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걷는 분들이 계시기에 2014년 한 해 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 2014년도 후원자 명단입니다. 2015년 후원자 명단은 내년(2015년) 연차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개인	고영옥	권필상	김다현	김민영	김성진	김옥	김재득	김진아(A)	김현주	남익용	문유빈
강경아	고유경	권혁숙	김대현	김민우	김성훈	김옥경	김재열	김진아(B)	김현철(A)	남정순	문일모
강대성	고은	권혁연	김덕향	김민정	김세희	김옥신	김재형	김진영	김현철(B)	남지현	문정희
강덕식	고재훈	권현주	김도경	김민주	김소영	김옥현	김정민(A)	김진옥	김형수	남현수	문주란
강동욱	고지혜	권효경	김도연	김민지(A)	김수권	김요한	김정민(B)	김진웅	김형중	남화정	민경서
강동진	고현정	권효정	김도현	김민지(B)	김수라	김용선	김정수	김진희	김형춘	노예진	민경선
강동훈	고효준	길승현	김도훈	김민지(C)	김수미	김용철	김정숙	김창숙	김혜경	노유정	민경애
강리경	공상철	김경면	김동선	김민지(D)	김수인	김용희	김정순(A)	김철민	김혜숙	노재명	민대훈
강명구	곽명란	김경미	김동완	김민호	김수진	김우춘	김정순(B)	김철호	김혜진	노정열	민동석
강명지	곽미진	이승현	김동준	김민환	김수현(A)	김원민	김정업	김철홍	김호경	노주영	민영서
강미자	곽병남	김경범	김동진(A)	김민희	김수현(B)	김원식	김정옥	김춘배	김호태	노지영	민예은
강병규	곽요나	김경섭	김동진(B)	김병구	김수현(C)	김원준	김정탁	김태순	김화미	노지원	민오익
강상호(A)	곽우실	김정은	김동현	김병삼	김숙희	김원희	김정하	김태영	김환식	노진아	민형중
강상호(B)	곽유경	김경임	김동훈	김병호	김순자	김유리	김정현	김태우(A)	김효재	노정남	박각생
강선희	곽은영	김경화	김동희	김복수	김승리	김유정	김정희	김태우(B)	김효정(A)	노근여	박건태
강소연	구동혁	김경희(A)	김돌남	김복순	김승예	김윤선	김제연	김태우(C)	김효정(B)	노선영	박경숙
강순례	구본석	김경희(B)	김마로	김봉숙	김승윤	김윤실	김조은	김태일	김효진(A)	노철수	박경준
강신용	구영옥	김경희(C)	김면수	김부열	김승희(A)	김윤희	김종목	김태형	김효진(B)	라용화	박경진
강영옥	구자형	김광자(A)	김명신	김분순	김승희(B)	김은경(A)	김종연	김태호	김홍재	류다혜	박규희
강원형	구효정	김광자(B)	김명애	김상민	김신실	김은경(B)	김종주	김택수	김희영	류미경	박기순
강운서	권갑수	김교재	김명옥	김상원	김아람	김은미	김종천	김판중	김희준	류수민	박기철
강윤철	권기범	김귀배	김명자	김상호	김연숙	김은선	김종호	김하은	나경옥	류은조	박남기
강은수	권미숙	김규민	김문원	김상훈	김영관	김은실	김주석	김한누리	나금주	류재구	박다인
강준광	권미희	김기란	김문정	김새한	김영기	김은영(A)	김주옥	김한조	나도현	류정아	박달서
강준희	권선미	김기욱	김문희	김생중	김영모	김은영(B)	김준수	김해자	나인광	류정훈	박동영
강중욱	권송	김기현	김미룡	김서동	김영미	김은우	김준현	김행자	나인애	류제현	박명의
강지혜	권송이	김길현	김미성	김서준	김영수	김은정	김준호	김현규	나정자	류현옥	박명자
강태현	권숙자	김나경	김미애	김석원	김영숙	김은혜	김지수	김현승	나주원	류혜은	박무제
강향숙	권순자	김나래	김미연	김선미	김영우	김의철	김지예	김현아	나희경	명수희	박문길
강호철	권예림	김나연	김미영	김우진	김영은	김익현	김지오	김현정(A)	남다연	문경준	박미경
강효정	권오규	김나운	김미자	김선연	김영재	김인하	김지용	김현정(B)	남순남	문상호	박미애
고남균	권익재	김나현(A)	김미현	김선영	김영주	김일순	김지현(A)	김현정(C)	남순민	문선영	박민석
고미정	권지현	김나현(B)	김민선	김설아	김영진	김재권	김지현(B)	김현정(D)	남순희	문세희	박병준
고민준	권채원	김남영	김민아(A)	김성순	김영철	김재근(A)	김직환	김현정(E)	남옥임	문언정	박병태
고영아	권택명	김남춘	김민아(B)	김성준	김영환	김재근(B)	김진수	김현중	남윤아	문예빈	

박복순	박지호	변용석	손정태	신명진	안지완	연현주	유동철	윤예지	이난표	이선중	이영우
박상미	박진미	변채호	손지혜	신명철	안치석	염기상	유명화	윤예진	이날	이선화	이영주(A)
박선민	박진수	서개석	손진주	신미아	안탁근	염상희	유성열	윤용섭	이다경	이선훈	이영주(B)
박선희(A)	박진영	서건석	손창현	신민수	안형균	염정선	유성중	윤인선	이도원	이선희	이영한
박선희(B)	박진원	서경애	송경섭	신상태	안호준	오금재	유세화	윤인숙	이동건	이성진	이영현
박성용	박진재	서광원	송다인	신상희	안훈숙	오병훈	유솔화	윤전애	이동규	이소미	이예원
박성우	박진한	서기원	송동호	신소애	안희성	오상협	유승원	윤정원	이동석	이소현	이옥분
박세남	박찬승	서만교	송려원	신숙례	양가윤	오서영	유원호	윤준식	이동훈	이소희	이완기
박세찬	박찬웅	서숙진	송미화	신승운	양난혜	오승봉	유재걸	윤준용	이두병	이송하	이용덕
박소연	박찬진	서순예	송민규	신영균	양도혁	오승현	유재분	윤창득	이루미	이수림	이용주
박순덕	박창오	서외자	송민희	신정식	양무인	오시원	유재수	윤태연	이문자	이수아	이용호
박승택	박창현	서용시	송병운	신정인	양미희	오영화	유재승	윤하준	이미정	이숙경	이우용
박시우	박철호	서은소	송보경	신종범	양방언	오윤혜	유재혁	윤혜정	이병균	이순덕	이원근
박연우	박지홍	서재민	송성민	신종철	양선영	오은순	유정원	윤화영	이병호(A)	이순아	이유빈
박영규	박태준	서정아	송유미	신지영	양세라	오장환	유지혁	윤희	이병호(B)	이순옥	이윤경
박영길	박평호	서종문	송은선	신지원	양유경	오정란	유채희	이강미	이병훈	이순자	이윤성
박영미	박하은	서주석	송은수	신창현	양은주	오중화	유철	이강일	이봉연	이슬기	이윤재
박영범	박현인	서지형	송은의	신현운	양판규	오찬양	유하나	이강현	이상교	이승미	이윤정
박영빈	박현수(A)	서채원	송인순	신혜림	양현정	오창숙	유현숙	이건민	이상열	이승섭	이윤주
박영수	박현수(B)	서현수	송재경	신호래	양혜원	오혜재	유혜원	이건복	이상용	이승수	이윤철
박영순(A)	박화숙	서현숙	송재용	심동천	양효식	오호림	유호연	이경미	이상진(A)	이승연	이윤해
박영순(B)	박화수	서희정	송재철	심숙경	양희주	오후진	윤경희	이경민	이상진(B)	이승훈	이은미
박영신	박휘윤	석다희	송정일	심옥화	엄미경	옥윤수	윤문희	이경애(A)	이상화	이신형	이은주(A)
박예숙	박흥순	설기영	송종진	심은하	엄윤나	옥철영	윤미란	이경애(B)	이석	이연숙	이은주(B)
박예자	박희선	설균태	송지미	심준구	엄은식	왕예진	윤민수	이경준	이선경(A)	이연지	이의수
박온비	박희정	설옥경	송지수	심태섭	엄정옥	우덕기	윤병순	이경호	이선경(B)	이영경	이인숙
박용성	방성주	성기연	송지우	안경섭	엄주희	우승희	윤석훈	이국용	이선미	이영복	이인재
박용진	배길송	성백제	송지은	안광재	여경민	원명주	윤선이	이근희(A)	이선복	이영서	이일용
박우광	배남인	성석현	송진섭	안규란	여재욱	위선주	윤수한	이근희(B)	이선영	이영선	이재광
박원섭	배동환	성영희	송진환	안소영	연제창	위욱자	윤영미	이기홍	이선옥	이영숙	이재권
박은경	배상순	성주영	송형진	안숙희		유경숙	윤영선		이선정		
박은선	배상훈	소문석	송황호	안영복		유단화					
박은지	배석임	손민지	송희림	안용섭							
박은희	배세은	손상락	신나래	안윤정							
박재섭	배연경	손수정	신다정	안윤준							
박재욱	배일렬	손아영	신동욱	안이경							
박점순	배재현	손영례	신동직	안재순							
박정섭	배진관	손영희	신명수	안준호							
박정연	배태선	손인옥									
박정용	배태슬	손정일									
박정주	백경실										
박종철	백명기										
박준홍	백서연										
박지선	백승현										
박지연	백진호										
박지영	변소윤										
박지우	변어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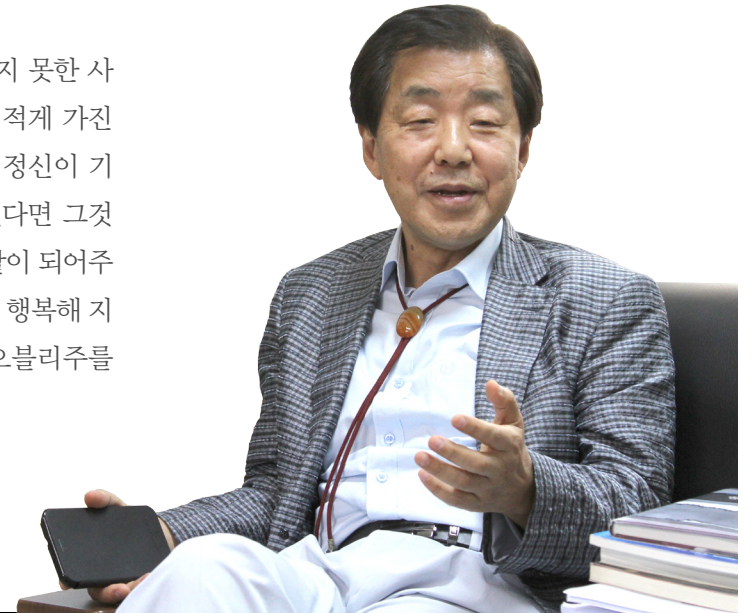
이재근	이혜순	장해경	정수경	제민서	지민선	최인경	함채민	단체
이재성	이호연	장해정	정시훈	제지현	지현구	최인숙(A)	허명희	(사)굿네이버스 인터네셔널
이재승	이홍규	장희경	정양희	제하림	진성욱	최인숙(B)	허세운	(사)동반성장연구소
이재일	이효린	장희명	정연욱	제환승	진정경	최재연	허정숙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이재현	이훈구	전경숙	정영철	조기열	차보영	최재원	허진호	(주)김치빌리어드
이재형	이희숙	전다래	정예원(A)	조남준	차상운	최재현	허혜정	(주)아이비앤웍스
이재호	인재름	전명금	정예원(B)	조노현	채수근	최정길	현경호	(주)윙키피컴퍼니
이재훈	임건호	전명숙	정옥주	조미정	채유님	최정아	현주	(주)이지나노에프
이정란	임근목	전명철	정용시	조민주	천우림	최정희	현지혜	(주)커피비평가협회
이정선	임돈희	전미선	정용주	조병인	천의예	최종문	형서운	(주)한국다인개발
이정애	임봉옥	전미선희	정운찬	조부형	최강인	최중서	홍계복	IYC
이정열	임서진	전보현	정원식	조상우(A)	최경난	최준렬	홍민숙	교보하트랙스(주)
이정우	임선주	전서진	정원용	조상우(B)	최경란	최준범	홍소희	남양농협현대지점
이정운	임순화	전성화	정유림	조석현	최공삼	최지수(A)	홍양호	남영산업
이정은	임승빈	전소라	정유빈	조선웅	최광민	최지수(B)	홍용자	디딤돌
이정혜	임영조	전소영	정유진	조수아	최낙현	최지안	홍윤경	배롱나무카페 모금함
이정화	임유리	전승문	정윤정	조순애	최명식	최진희	홍은교	범천착한어린이집
이정환	임유정	전신옥	정은선	조아름	최명자	최충일	홍은표	법륜유치원
이조아	임은정	전용균	정의용	조양현	최명재	최필규	홍종대	비알에이전시
이종범	임인순	전용자	정익수	조영국	최무경	최현숙	홍주선	비전케어
이종욱	임재현	전주현	정인교	조영상	최미나	최혜정	홍혜진	성내교회
이종은	임종범	전지완	정인혜	조영수	최미영	최화영	황규애	세무법인비전대전지점
이주림	임진경	전진성	정인혜	조영택	최봉락	최효준	황동욱	세종학원
이주연	임태인	전찬규	정인환	조예나	최상일	추서영	황민혜	신진테크(주)
이주호	임현목	전철희	정일량	조용덕	최석중	추연석	황보성은	엠알통신주식회사
이주훈	장근석	전해준	정일순	조우진	최석진	추영호	황상문	유네스코 대학생 기후변화 프런티어
이준희	장미애	전현수	정재동	조유나	최선아	하윤경	황수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중훈	장미현	전현진	정재륜	조운선	최성규	하윤영	황영숙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지영(A)	장민경	전혜성	정재욱	조올래	최성순	하천일	황유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지영(B)	장서연	전홍찬	정재원	조인호	최성운	하현택	황의진	한국해양학회
이지원	장선인	정경선	정재정	조정희	최성자	하현지	황재섭	해피빈
이지윤	장수철	정경화	정정희	조진환	최성태	한경욱	황재웅	
이진기	장신미	정규일	정주관	조청제	최송아	한계수	황지현	
이진원	장영숙	정다원	정주영	조춘기	최송자	한남임	황진영	
이창근	장영훈	정동율	정지연(A)	조태민	최승철	한동민	황채린	
이창섭	장용주	정두용	정지연(B)	조푸름	최영석	한명희	황태건	
이창우	장은진	정문숙	정진미	조학국	최영숙	한미숙	황태학	
이채만	장익진	정미애	정진영	조한민	최영은	한미현	황학성	
이철호	장인숙	정미자	정진우	조한상	최영자	한병채	Christopher Huh	
이철훈	장재율	정병근	정진혁	조현진	최용락	한보화	Jonathan Huh	
이초미	장정식	정사라	정창윤	좌효숙	최우영	한상봉	Lora Huh	
이하늘	장지원	정상범	정춘지	주경철	최용식	한순희	Michael Kim	
이현경	장지원	정상희	정태순	주영아	최윤성	한아름	익명 3명	
이현수	장차열	정석현	정해권	주예름	최윤지	한옥규	작은누리 개방행사 꿀판매금	
이현준	장철호	정선아	정항점	주예은	최은송	한원희		
이형구	장한별	정선옥	정현희	주인식	최은정	한일선		
이형일	장행모	정성웅	정혜윤	주준호	최은희	한지민		
이형철	장현식	정성자	정희영	주혜련	최이선	한철민		

## 후원자 나눔 이야기

### 브릿지 활동가 민신혜 아버지

#### 민대훈 서울기독교대학원 교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의 힘이 되어야 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팔이 없다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팔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버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네스코키즈 1기 참가자

#### 국원초등학교 정석현 어린이

“<유네스코뉴스>를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아프리카, 아시아의 어려운 이웃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가하고 있는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에 어려운 친구들이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돕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구요.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돌아온다고 하기도 하고, 착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 유네스코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기업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희망으로 가는 길을 함께 일궈주신 대표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심은 씨앗, 따뜻한 사랑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b>현대그린푸드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교육·급식지원사업</b> 지원국가 레소토 대상 저소득가정 아동 내용 교실·학교급식소 [희망의 그린푸드] 건축 학교급식 운영 지원, 보건위생교육 진행 효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교육참여 확대
 KB 국민카드	<b>KB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아시아 여성교육사업</b> 지원국가 필리핀 대상 비문해 성인 여성·학업중단 청소년(소수민족·이슬람교도) 내용 문해교실 운영, 교재 및 학용품 지원, 문해강사 연수 효과 마을 주민의 교육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KB 금융그룹	<b>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사업</b> 지원국가 네팔, 라오스 대상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 내용 나무심기, 수로 정비폐물 재활용 기후변화 적응 작물 재배를 통한 소득창출 효과 마을 주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
	<b>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유네스코 키즈 프로그램</b> 지원국가 대한민국 대상 국내 어린이(초등학교 5~6학년) 내용 세계시민교육 진행, 세계시민으로서 생활 실천 해외현장학습(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 방문) 효과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 그리고 희망나눔가게

‘유네스코 희망나눔가게’는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유네스코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에 후원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가게입니다.

가게명(가입일순)	대표자명	주소
대도식당	김흥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3
예화피아노	이애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4동
스타킹크랩	이상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우대가	임국환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2-1번지
진동희집	박석일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63
오군순두부	모상송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6길 23
일품가든	김대수, 최도영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9-10
아하바 브라카	윤우식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3
대흥포장(주)	이주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110번지
금산주유소	안준용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산리



유네스코 희망나눔가게 현판  
※ 배롱나무카페는 유네스코회관(서울 명동) 옥상정원에 있는 기부카페입니다.



첫번째 유네스코 희망나눔가게인 대도식당의 대표인 김흥숙님



#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지구촌 교육나눔 사업을 위한 후원모금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4년, 유네스코의 평화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는 유네스코 학교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따뜻한 나눔의 바람을 전국 곳곳에서 불러 일으켰습니다. 직접 만든 소품들을 팔고, 축제 때 부스를 열고, 거리에서 캠페인을 하며 모은 그 따뜻한 마음을 한위에 전달해 온 학교만 벌써 24곳. 방법은 서로 달라도 마음만은 하나였던 그 나눔활동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다 함께 소래산을 등반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다문화학생 및 저개발국가를 지원하는 후원금을 모금해 기부했습니다. (시흥은행중학교)



‘쿠키로 알리는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 쿠키’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유네스코동아리)

학교(가나다순)	교장선생님	소재지
개성고등학교 유네스코반	강은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경희초등학교	김외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교문중학교 유네스코반	김순례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오혜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보성여자중학교 유네스코동아리	홍자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유네스코부	김선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북일고등학교 국제과	강익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상당고등학교	김병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서울신용산초등학교 유네스코 눈꽃교실	김종덕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석촌중학교	유명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시흥은행중학교	이옥분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안동영명학교	배영철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어방초등학교	김효문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
용인고등학교	박만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유네스코동아리	이재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진건중학교	강명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청주고등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임기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태광중학교	황지연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한국관광고등학교	김남희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유네스코동아리	김봉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임덕호 (총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홍천중학교	박재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흥덕고등학교 유네스코동아리	김창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친선/홍보대사 (위촉일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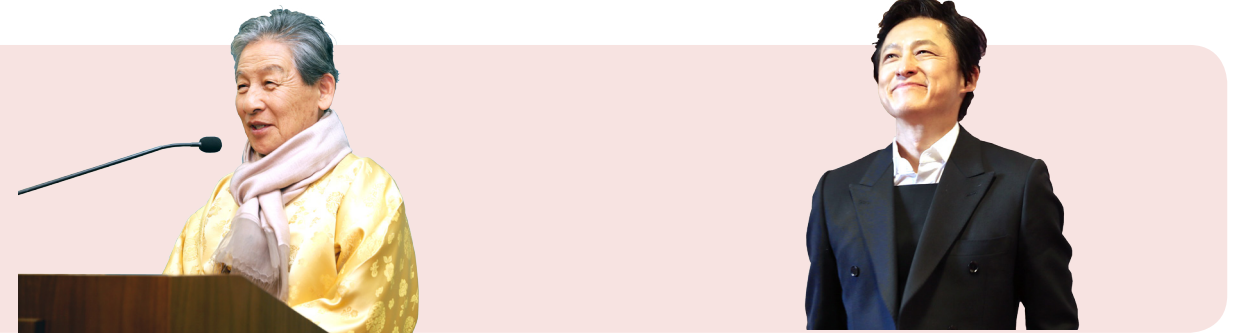


### ‘세계 재즈의 날’ 홍보대사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재즈라는 음악의 탄생 배경 자체가 평화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전 세계가 분쟁과 갈등을 내려놓고 재즈로 소통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멋진 일도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음악으로서 재즈 뿐만 아니라 재즈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별홍보대사 배우 신세경

“단순히 빵이나 생필품이 아닌 교육으로서 가난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더 나은 삶을 바라게 될 테니까요. 유네스코의 저개발국 교육지원 사업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전통문화 친선대사 황손 이석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명맥이 끊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왕실문화를 복원하고,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가치를 국내외에 전파하기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 평화예술 홍보대사 피아니스트 양방언

“아시다시피 저는 교육자가 아님니다만,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만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저 혼자 힘은 미약하지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그리고 각 나라의 뮤지션과 예술가들의 도움을 받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 홍보대사 국악인 송소희

“흔히 어린이가 세계의 미래라고들 하잖아요. 앞으로 저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저개발국 교육 지원에 신경을 많이 써서,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많이 주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활동에도 관심이 많고요.”

### 평화친선대사 시인 고은

“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평화의 의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실천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 평화예술 친선대사 팝페라테너 임형주

“나눔 활동을 하면서 제가 주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받는 것이 더 크다는 걸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그간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의 험벗은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이들이 배우고 그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저와의 공통분모입니다.”

### 평화예술 홍보대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나눔과 봉사활동은 제가 가장 힘들 때 절 살리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면서, 그 통로가 되는 제게는 더 기쁨과 위로가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서 혼 담은 선율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 201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연차보고서

펴낸날 2015년 5월 31일  
펴낸이 민동석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http://peace.unesco.or.kr>  
문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개발홍보본부 후원개발팀  
전화 02-6958-4188  
전자우편 [peace@unesco.or.kr](mailto:peace@unesco.or.kr)  
편집 주준호, 김선영, 신소애, 정인해  
디자인 김현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등록번호 PR/2015/RP/1



“배우는 만큼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아프리카는 변화됩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저개발국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교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가난한 지구촌 이웃들에게  
교육으로 희망을 전해주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후원안내**

전화번호 | 1800-9971 홈페이지 | <http://peace.unesco.or.kr>